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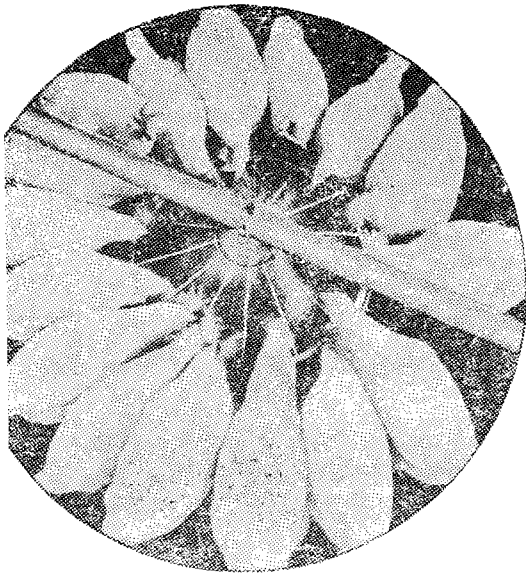
□ 특 집 □

# 부로일러 시설의 개선점

민 덕 기

<인산농원 전무>

\*\*\*\*\*



육류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서 닭고기의 소비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부로일러의 육성이 전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로일러를 육성해 내는 건물의 구조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은 부로일러 육성에 있어서 환경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산능력과 생산비 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질과 육미(肉味)에까지 영향을 주어 상품적 가치까지 좌우하게 되므로 경영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 1.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점

### (1)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 것

일반적으로 부로일러 육성은 단위면적당 많은 마릿수를 수용하게 되며 습윤으로 인한 가스의 유출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습도와 가스 발생이 많기 때문에 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평사에서보다 입체적으로 육성하는 바다리 육성에 있어서는 상하의 온차가 없이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름에는 실내나 실외의 온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시설의 방향과 배열, 창문, 환기시설의 위치와 수 및 양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하여야 한다. 즉 육성사의 실내 공기가 1시간에 3회 이상 전체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밀폐식 계사에 있어서는 선풍기를 달아 인공환기를 시켜야 하며 여름에는 개방식 계사가 좋다.

### (2) 계절에 영향이 적은 시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시설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겨울에 추우면 굵은하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며 또 병아리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열량을 소비하게 되므로 사료의 효율이 떨어져서 발육이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식욕이 감퇴되며 사료 섭취량이 적어지므로 발육이 늦어진다.

그러므로 부로일러는 연중 육성생산하게 되도록 위치·방향(축광과 풍향으로 본 견지에서)·온차에 따라서 벽의 재료와 천정·창문의 넓이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 (3) 바닥과 실내 공기는 항상 건조해야 한다.

육추사의 바닥이 습하고 공기가 과습하면 각종 질병의 발생이 많아지며 위생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닭몸이 불결하여 상품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병습하면 발과 배가 차거워져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고 발육이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입추 후 2~3주부터는 되도록 건조하게 하며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사내의 바닥이 밖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파 항상 건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 (4) 안정된 환경과 방역

병아리를 육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안도감을 주는 환경시설이 되어야 한다. 광선이 직사로 지나치게 밝다든지, 주위가 소란스러워 자주 놀라게 된다든지 하여 불안감을 주면 균일성 있게 발육이 되지 않으며 육추율이 나쁘다. 그리고 방역상 성계사와 멀리 떨어져야 되고 외부 사람의 출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기계화된 시설을 축구

사양 규모의 확대와 생산비의 절감, 나아가서는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계화되는 것이 시급히 촉구된다.

사양관리와 환경의 조절을 기계화하므로써 생력(省力)으로 인건비의 지출을 절감하게 됨은 물론 균일성 있게 정확히, 그리고 정밀하게 관리되며 안정감을 주고 방역상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료의 손실이 적으며 육성 중 압사 또는 피부의 상처로 상품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고 육성율이 균일하게 좋아진다. 이와 같이 기계화함으로써 경영상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며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연속성 있는 생산 시설

부로일러의 출하는 일정수를 연속적으로 육성하여 판매하는 것이 경영상 소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따르는 적정 시설의 규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로일러 생산의 연속 출하와 노동단위 및 경영의 최소 적정 규모는 1회(6일마다) 2,000수씩 입추하여 육성 판매하는 규모 즉 전체 20,000수 이상 규모로 사육하여야 한다.

평사 육성에 있어서는 빠다리에서와 같이 1·2·3차식으로 병아리를 옮기면 환경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며 위생상 좋지 못하고 자칫 것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입추하여 출하할 때까지 옮기지 말고 육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1회분을 넣어 육성하여 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며 만일 6일 간격으로 입추한다고 하면 같은 건평의 건물이 12채(등) 정도 있어야 된다

빠다리에서는 1·2·3차로 옮기게 되지만 각 차수마다 1회분의 시설을 여유있게 만들어 소독의 철저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한다. 즉 1차분을 4회, 2차분을 4회, 3차분을 4회 이상 여유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등 수준의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구조는 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 것

내부시설의 구조가 복잡하고 취급(조작)에 숙련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 운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부로일러 생산 시설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노력이 적게 들고 1인당 관리 수수가 많아질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한다.

(8)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고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부로일러 육성은 평사의 경우라도 연 5회 반복하여 육성하며 빠다리의 경우는 18회 이상 반복하여 생산하게 되므로 1회 육성해 내면 청소와 소독을 하게 되는데 완전하게 소독해야 되므로 시설이 이에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기타 방역·위생시설을 철저히 하고 화재 위험성이 없고 견고하며 경제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

2. 시설의 검토와 개선점

육성 방식은 평사와 빠다리식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절충식으로 된 것이 있고 케이지 사육도 있으나 일장일단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빠다리식의 육성이 많은데 구미 각국에서는 평사를 많이하고 있는 편이다.

그 큰 이유의 하나는 평사로 하면 기계화 시설이 용이하며 이에 따르는 노력이 적게 들게 됨으로 1인당 관리 수수가 빠다리보다 몇 배 육성하게 되므로 인건비가 적게 들며 환경의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고 가슴의 근육 발달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미 각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고 자금의 여유가 있어 기업적으로 시설하여 육성하기 때문에 평사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인건비가 싸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여건하에서 빠다리 육성은 좋으리라 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부로일러 육성에 적합한 시설만 갖추면 평사에 비하여 조급도 손색이 없고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육성율이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이웃 몇 농장에서 육성한 연중 성적을 보면 평사보다 빠다리가 훨씬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즉 전용종을 가지고 육성하였을 경우 8주에 1.4kg 이상이 무난히 육성되고 육추율도 98% 이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기업적으로 시설 전부가 기계화되지 않는 한 빠다리 육성을 권장하고 싶다.

그 이유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들면

- i) 빠다리에 육성하면 평사보다 단위 면적당 2~3배의 수용 능력을 갖는다.
- ii) 연속적으로 입추하여 육성 후 매일 출하할 수 있다.
- iii) 입추 수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넣을 수 있으며 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iv) 연료비가 적게 들며 일찍 폐온할 수 있다
- v) 위생적이며 입을 통하여 침입하는 질병의 감염율이 적고 전파가 적다.

**[주의·개선할 점]**

i) 빠다리의 바닥은 나무로 하여 상하로 출렁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빠다리 전체가 좌우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병아리가 불안하여 발육이 나쁘다.

흔히 볼 것 같으면 너무 간소하게 만들어져 병아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리므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육이 나쁘니 이점을 꼭 시정해야 된다.

ii) 빠다리 한개의 규격은 높이를 1차는 7치, 2차는 11치, 3차는 13치로 할 것이며, 넓이는 3자 길이는 1.5~2자 정도로 한다. 문제는 높이를 다른 것보다 높이하는 것이 좋다.

iii) 제작에 있어서 병아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말 것. 즉 조잡한 제작을 하지 말 것. 만일 조잡하여 상처를 입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빠다리병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iv) 밀사가 되지 않도록 기간이 되면 반드시 옮겨야 된다.

v) 구조가 복잡하면 관리하는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와 소독이 어려워니 분해식으로 만들어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

들 것.

vii) 급온 시설과 환기방법을 합리적으로 하여 위와 아래의 온차가 나오지 않게 할 것.

vii)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도를 넓게 할 것.

viii) 1차 육성이 끝나면 완전히 옮기어 그 칸의 청소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칸이 막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시설의 개선과 관리에 주의하면 빠다리에 육성하는 것이 평사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고 편리하며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 부로일러 사업에 있어서는 경영상 유리하다.

그리고 제사의 폭은 넓을수록 환경의 영향이 적으니 30자 이상의 폭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천정의 높이는 8자 이상 9자 정도가 좋다.

1차의 육추실은 보온과 외기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하여 창문을 적게 하며 흙벽돌 또는 부력으로 두껍게 만들고 천정에는 반드시 왕겨나 톱밥을 5치 이상 넣어 방서·방향을 하여야 한다. 즉 시설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좋게 하므로 육추율이 좋아져 결과적으로 경영상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2차 시설은 1차와 비슷하게 하며 3차는 개방식으로 창문을 많게 또 비니루 벽도 좋다.

이상 여러개를 들었으나 각각 일장일단이 있어서 문제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능력의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환기·안정·소독의 철저와 관리가 편리하고 방역에 주의하면 된다.

기타 사양(사료)관리와 품종 선택, 그리고 환경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어떤 책을 읽을까 망설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월 간 양 계**

- ★ 충실한 내용!!
- ★ 파격적인 봉사가격!!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울시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로 하기의 금액을 소액환으로 보내 주십시오.

1년분.....720원    반년분 480원

전화 문의는 서울 26-0321로!